

생활시설 종사자가 경험한 남성노인의 성적욕구 표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xual Desire Outburst of the Male Elderly Residents Experienced by the Workers in Living Facilities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 수 이인수*

Dept. of Old people's Welfare, Hanseo Univ.
Professor : Lee, In-Soo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explore verbal and behavioral expression of sexual desires among male elderly residents who have been living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There are three topics covered in this study; first, in what situations and how seriously do care workers encounter expression of sexual desires of the elderly residents? Second, what kind of negative consequences do they believe those sexual behaviors will lead to? Third, how can we implement defensive measures against the sexual behaviors? In this study, twenty three care workers working full time in five retirement and care facilities were asked about their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the above study agendas, and answers of the qualitative interview were drawn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residents apparently show a variety of sexual harassment and provoking behaviors such as sticking to specific women, physically touching and attacking, and induce obscenely activities against female residents, care workers, and volunteer visitors. Second, their sexual behaviors are often influenced by their isolated and abandoned emotionality as well as living situation in rural areas. Third, their sexual behaviors often critically affect care work plan and facility managements by severely discouraging female care givers and community supporters. Therefore in this study, suggestions and defensive measures were made as follows: first, education and counselling programs toward female workers and volunteers need to be developed, and the programs should cover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mechanism of sexuality in later life. Second, self control plans need to be empowered toward the elderly residents; in the plans, the elderly residents shall be encouraged to evaluate primary cause and proper solutions of sexual behaviors of their peering residents. Third, combination of healthy housing and care facilities for frail elderly need to be integrated in a neighboring location, so that when residents and workers encounter extreme episodes of sexuality of healthy residents in a housing facility, the problematic sexual residents are partially transferred into a neighboring care facility and thereafter other residents and care givers are relieved from stressful contacts with the extremely sexual residents.

▲주요어(Key Words) : 성적욕구(sexual desires), 신체접촉(physical contacts), 자조통제계획(self control plans), 성작용기전(mechanism of sexuality), 근린지역 통합(integrated in a neighboring location)

I. 서 론

1. 문제제기

저출산과 수명연장의 복합적 효과로 촉발된 인구고령화 속도는 미국 등 구미 선진국의 2~3배에 해당하여, 노령인구가 5%에서 7%로 되는데 걸린 기간이 선진국은 25~30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고령화현상과 더불어 노인들이 장기간 입소하여 숙식하며 거주하는 노인생활시설 수요 역시 급속히 증가하여, 예를 들어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2004년말 당시 125개 시설에 약 7,000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었고 2006년말 현재는 181개 시설에서 1만여명이 생활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 2007), 이러한 숫자는 98년 말 102개 시설에 5,000여명이 생활하던 것에 비하면(현외성 외, 2002), 8년 동안 시설 수는 약 80%가 증가하고 입소 노인 수는 약 100%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노인생활시설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극소수 노인들의 수용시설이라기 보다는 대다수 노인들의 일반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대안이라는 가정 하에 보다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기에 다다른 것이다.

가정관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렇듯 폭증하는 노인생활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시설을 단순한 숙식해결의 공간이 아닌 보편타당한 일반 가정에 버금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 2005). 가정은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구성원들과 애정체감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간이다(Carter & 외 정서 교류와 사회화를 경험하면서 내면적 성숙과 자McGoldrick, 1990).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고 동료 노인들과 교류하고 직원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즐기고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몇 년 동안 생활하는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노인생활시설 역시 그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가정이 될 것이다. 노인생활시설이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숙식과 의료관리와 같은 기본적 서비스 외에도, 종사자들이 자녀와 이웃을 대신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은 물론 목욕, 여가프로그램, 외출을 동행하거나 보조하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그러나 시설종사자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노인입주자를 기피하게 되고 심지어는 학대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 결국은 가정에 버금가는 보살핌을 불가능하게 하는 무서운 복병이 있는데, 그것은 곧 노인입주자의 성적욕구를 드러내는 행위다. 노인들이 성적인 공격을 하거나 민감한 부분을 노출시키는 등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공포감을 초래하는 성적욕구 표출행동은, 과거에는 무연고 극빈 노인들만의 소규모 복지시설이 대부분이던 시기에는 그 발생빈도나 심각성이 미미하여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여겨지곤 했으나, 이제는 노인전용 생활시설이 건강하고 부유한 노인들에게도 보편화된 시기에 이르러, 그 발생빈도나 행위의 強度도 확대되면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년기에 있어 성이란 단순히 성교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만족, 친밀감, 즐거움과 따뜻함을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Barber, 1996)으로, 노인의 성기능에 관한 최초의 실험실 연구자였던 Masters와 Johnson(1966)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에도 원만한 성적 능력을 유지하며, 특히 규칙적이고 효율적인 성 자극에 노출된 노인일수록 그 경향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충분한 개인 공간이 부족하여 대다수 노인들은 불편하고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지 못한 장소와 상황에서 성 행위를 하거나 그 욕구를 표출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과 사기와 같은 심리적 복지가 저하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존경심을 상실하게 하는 위험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Welch & Clements, 1996). 즉, 시설 내 노인들의 개인생활 공간의 부족, 직원들의 편견적 태도, 성적표현에 대한 문화적인 거부 등 단체생활이라는 제한된 환경에 의해 구속당할 수 있으며 이성과 어울릴 기회와 성생활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오진주, 2002),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발적으로 성적 욕구 표출을 함으로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따스로운 환경에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영역은, 우선 그분들을 부모님과 같은 경외스런 존재로 인식하는 온정적 태도, 직장인으로서의 전문적 책임의식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직장에착(허갑수, 2003; 안소윤 등, 2002), 그리고 노인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지치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신 신체적 조건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즉, 종사자들이 노인들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우선은 노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감싸려는 의욕이 강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고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물학적·심리학적 한계점을 넘어서는 소진(消盡)상태에 다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인입주자들이 여성 종사자에게 성적 공격행위를 하거나 보는 앞에서 성기를 만지거나 혹은 남들이 다 알아차릴 만한 흔적을 남기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성적표출 행동은 여성인권 측면에서 볼 때 분명 인내하기 힘들고 노인을 경외스럽게 대할수 없는 극단적 행동이기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물론 선진국 대부분 노인시설에서의 성관련 문제는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것만 보고되면서 양성평등 개념에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성기능이 실제적인 육체적 행위로까지 표현될 수 있는 연령에 있어 여성은 호르몬 및 성기능 관련 분비액이 형성되는 50대 후반까지인 반면 남성은 외부생식기 활동가능시기인 70대 후반까지라는 확연한 차이에서 볼 수 있다(Carter & McGoldrick, 1990). 그리고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노인은 평생 독신으로 인한 무연고나 경제능력 부재가 생활시설 입소의 주요 이유인 반면 남자노인은 문란한 이성관계나 알코올중독 혹은 폭력적 행동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시설로 입소하고 입소 후에도 성관련 문제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작은 자의 집, 2006).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설내 노인들의 성문제는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문제로 국한되고 있는 바, 근래에 이루어진 몇몇 연구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남자노인들은 항상 고립된 공간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면서 친숙해진 몇몇 동료들 사이에 서로의 삶에 자신감을 주며 연대감을 부여하고 자기 유용감을 얻게 하는 등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성적인 농담을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심지어는 함께 모여서 성기를 노출시키거나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김태현·한희선, 1966), 또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도 고찰되고 있다(오진주·신은영, 1998). 외국 연구에서는 노인입주자가 간호사나 생활보조원에게 성적인 공격행위를 하거나 노골적인 추행을 시도하는 구체적인 사례 및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시되고 노인입주자의 성적표출 행위는 매우 위협적인 잠재성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 반면(AAHS, 2002; Archibald, 2002),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노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노년기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욕 향상의 한 가지 방편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현·한희선, 1966; 오진주·신은영, 1998). 더욱이 시설에서 유급직원으로서 종사해온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오랫동안 접하면서 회피하거나 모른 척 하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습성에 익숙해졌기에(오진주·신은영, 1998) 표면으로 문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노인시설의 대중화 되고 여성인권이 보다 높은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시점에서 볼 때, 노인입주자의 성적욕구 표출이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화 된 시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노인들의 성적욕구 표출을 대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의 그러한 표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미래지향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입소하여 오랫동안 생활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유급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노인 입주자들의 성적욕구 표출을 경험한 상황과 이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한다.

1.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에 직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남성노인 입주자들의 성적욕구 표출(성희롱, 추행시도, 성기노출 등)의 구체적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2. 이러한 성적욕구 표출은 종사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각각 어떠한 문제점을 유발하는가?
3. 이러한 성적욕구 표출을 예방하고 그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선책을 제시할 것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노년기의 성

인간의 성에 대한 관심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신체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유아기 때부터 비롯된다(Carter & McGoldrick, 1990).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표출되기 시작하여 행동으로 옮기면서 어떤 상태가 최상인지를 결정짓는 시험 단계이며 한편으로는 성인이 되어서도 성과 관련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에 대한 집착과 탐구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성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중년기를 넘어 노년기에 도 계속되어, 노인들은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려 하면서도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위엄 있고 부드러운 老人像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박형규, 2001).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성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로 구분되며 평생을 또한 성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성적 특성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적응해 나가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Carter & McGoldrick, 1990).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노년기의 심리적·사회적, 발달은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를 거쳐 계속 이어지며 성숙하는 과정으로 보아야하며 특히 노년기의 신체적 노화나 쇠퇴를 기능적인 면에서의 감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숙과 발달의 측면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기에

노년기에도 누구나 성 욕구와 성 기능을 유지하며 성생활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성은 단순한 생식행위를 넘어 사람다움을 드러내게 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한 요소이며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현대인의 주체형성은 사회적 권력 관계가 응축된 성(城) 관련 행위에 대한 자신의 배려에서 생성될 수 있다(이진우, 1990). 따라서 성에 대한 인식과 행위는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인의 보편적 상식으로 일반화되어야 하며, 노인 역시 이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서 성을 자신의 생존력으로 보존하면서 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이나 관심 등의 표현을 유지하면서 개인생활의 안정과 만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노인에게 있어 성은 자연스럽고 보편타당한 사회적 현상을 넘어 남성으로서의 우월감이 가미된 다소 기형적인 것이다. 노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한국사회에서의 성(性)은 남성우월주의의 표상 그 자체다. 남성은 공공연히 많은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혼인 외 자식을 생성하는 것이 사회적 배경과 개인적 역량, 그리고 남성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남성우월시대의 관습으로는 경제생활이 풍요롭거나 여성을 지배하는 성적 지배력이 있는 남성의 성은 사회적 규범보다는 개인적 생활가치로 통하는 불공정성을 낳아왔다(손장권, 1997). 즉, 서양의 지적 전통에서 성 의식과 성행위가 이성과 감성의 차원으로 분리되어 인식하였다면, 동양은 성(性)의식과 성행위를 통합체로 인식하여 왔으며 특히나 과거 유교적 전통의 한국사회에서는 성(性)의식과 성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서양처럼 양성평등 개념아래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태현·한희선, 1966).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인 남성우월주의 관습에서 살아온 남자노인들의 성행위는 아직도 자신의 가족과 사회의 유지 존속에 필요한 기능적인 통합행위로 당연시 되어야 하고 여성에게 스스럼없이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은 남자다운 행위이고, 오히려 육체적 성행위에 대한 오늘날의 부정적인 규범의식은 서구전통의 이성적 판단을 강요한 주입식 교육이 빚은 허위의식 일 수도 있다(정은희, 1993). 이렇듯 남자가 여자에게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을 남자다운 당연한 행위로 인식하며 살아온 한국인에 있어서 노년기의 성활동은 삶에 자신감을 주며 연대감을 부여하고 자기 유용감을 얻게 하는 등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즉, 성적 표현 대상여성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년기의 고독감 해소와,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윤희계 역할을 한다는 일방적 측면으로만 이해되어온 성향이 지배적인 것이다(김태현·한희선, 1966).

그러나 노인의 성은 꼭 이런 활력적이며 긍정적인 요소

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의 성과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단지 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게 되는 편견, 즉 노인의 성은 실질적인 성적 욕구와는 상관없는 그저 젊어서부터 해온 습성을 무의식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일 뿐 별다른 효능감 표현은 아니라는 연령차별주의(ageism)적 편견(Stereotype)도 존재한다(이예중, 2000). 여하튼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노인의 성은 남자로서의 당연한 현상이라는 남성우월 유교관습의 맥락에서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주체스러운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매우 초보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졌을 뿐,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까지도 포함한 자세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고 성을 논하거나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형편이며, 성에 대한 연구풍토는 불모지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변화, 특히 노인의 성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연구경향을 고려해 볼 때, 그간 터부시되었던 성 영역에 대한 연구를 막연히 사각지대에 놓아둘 수는 없으며 차츰 단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하고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성욕은 남녀 누구에게나 70세 이후까지 유지되고 성생활이나 부분적인 성적 욕구충족 역시 고령기에도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서 노후에도 적절한 성생활이 도움이 된다고 나타난다(김태현·한희선, 1966).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나 해결의 노력이 '노인의 성'이라는 영역에서는 미비한 실정이나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삶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정승은, 1999). 21세기 들어 각종 매체에서 성을 주제로 다루고 성에 관한 담론이 개방적인 분위기인 만큼 그 대상이 젊은 층 뿐만 아니라 노인도 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인의 성적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그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노인이 더 이상 탈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젊은 층과 같은 욕구를 지닌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현·한희선, 1966).

2. 노인시설 생활의 특수성과 성적욕구 표출

노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노인의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오랫동안 생활해오던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적응 행동이며 의식주와 건강관리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과 단체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설생활은 두려움, 충격, 허무감, 피해의식, 우울증이 정서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

아지며 특히 단체생활의 구속이 개인적 취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이기순, 1994). 자연스런 사회로부터 떨어진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취약해진 정신신체상태와 가정을 떠나 낯선 곳에 산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발동하여 우울한 정서성향을 보이며 종사자나 동료노인에게 위협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언행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장소에 오랫동안 배회하며 다른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싸움을 거는 일, 몽유병(perambulatory)을 유발하는 수면장애, 성적 공격행위(sexual assaults)등을 행한다(Levesque, 1993; Pynoos & Regnier, 2000).

이러한 문제행동을 접하는 간호사나 복지사 등 대부분 종사자들은 강한 애착을 갖고 이러한 문제행동에 대해 투약과 상담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며, 동료노인들도 함께 살기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오랫동안 접하면서 점진적으로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자신이 소진되어버렸다고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생활시설은 제한된 공간에서 같은 사람끼리 오랫동안 마주 보며 생활하기에, 일단 노인의 성적 욕구 표출로 인한 상호 긴장과 대립이 형성되면, 입소 노인과 관리직원 사이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노인입소자들끼리의 성적인 욕구표현은 경우에 따라 생의 활력소가 되어 함께 외출을 하거나 식사하거나 혹은 합방을 하면서 정서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이인수, 2002),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직원에게 가해지는 성적 욕구 표출은 근무사기를 저하시키고(강수지, 1996) 노인을 무성의하게 대하도록 하며, 심지어는 노인에게 필요한 케어서비스를 꺼리거나(Randolph Hills Nursing Center, 1994)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떠미는 등 학대행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Pillemer & Moore, 1989).

하지만 아직도, 노후에는 성적욕구가 소멸한다고 믿으며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편견과 태도가 일반인 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가에게까지 만연되어 있으며(Hillman & Sticker, 1994), 심지어 노인은 성적 정보에 대한 요구가 거의 필요치 않은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Brown 1989; 송미순 등, 1997). 이러한 현상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로 하여금 노인의 성적욕구 표출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예고하고, 이러한 성적욕구 표출이 가져올 수 있는 근무사기 저하나 노인입소자 관리 소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노인의 성 표출에 직면하는 노인관련 보건의료 시설의 종사자들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며(McCartney et al., 1987; Zimmer et al., 1984), 많은 노인보건의료시설 직원들은 노인의 성의 표출에 직면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문제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Szass, 1983). 몇몇 연구에 의하면, 요양원에서 노인들의 성기노출이나 자위행위를 성적욕구 표출이라는 자연

스런 행동으로 보지 않고 행동장애로 보고 있으며(Zimmer, 1984), 그러한 노인들의 행동은 직원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비칠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심각한 장애」로 보는 것은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직원들의 태도와 신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설에서의 노인의 성에 대한 최초의 연구를 고찰해 보면, 요양원내 노인들의 약 25%는 성적행위나 이야기로서 문제를 야기 시키지만 성적행위에 당면한 직원들은 매우 불편감을 느끼며 어떤 행위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대화나 행동 앞에서 직원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였다(Szass, 1983). 또한 노인관련 인력들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되었는데, McCartney 등(1987)은 양로원에서 성적표출 행위를 보인 2명의 노인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직원의 태도는 하나의 경우는 직원들이 억누른 경우를, 또 다른 경우는 직원들의 배려로 황혼기 결혼에 이른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적 표출이 인간적 본능의 표출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한 요구가 단순히 억압되기보다는 건설적이고 성숙한 방법으로 표출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노인관련 종사자들의 허용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시설 인력이나 노인가족, 노인들에 대한 교육은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Rowland & Haynes, 1987; Steinke, 1998)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에 앞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노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노인의 성과 관련되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오진주·신은영(199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간호사나 복지사등 여자직원 앞에서 성기가 발기하거나 욕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등 성적욕구 표출을 자주 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상담은 매우 중요한 간호의 구성요소로서 포괄적 간호제공에 필수적이며 본 영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간호사를 비롯한 노인관련 인력들은 노인에 대한 전인적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성적 측면을 활동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의 몇몇 연구에서도(Randolph Hills Nursing Center, 1994; Pillemer & Moore, 1989; Rowland & Haynes, 1987; Steinke, 1998; 오진주·신은영, 1998) 노인 복지시설 내 노인의 성적욕구 표출은 당연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법이나 대안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노인이 상담해 올 때 상담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시설의 인력들이 성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대처하는 기술에 대하여 잘 훈련되어 있다면, 성적 문제를 갖는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성적 표출을 바람직한 방법의 표현으로 전환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노인의 성과 노화에 대한 태도 및 지식수준을 규명하고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련 인력들이 노년기의 성에 대한 실제 모습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입소노인들이 행동과 표정, 감정표출 등 여러 가지 경로로 노출시키는 성적욕구에 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시설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입소노인과 시설직원간의 보다 원만한 관계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 충남, 전남지역에 소재한 5개 무료 및 유료 노인생활시설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관리

직원등 유급종사자 23명을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해 연구주제를 조사하였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 운동본부 지회, 푸드뱅크(Food Bank), 사회복지사협의회등 3개 단체에서 활동 중인 직원 및 활동 중인 직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지원금이나 후원물품을 전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시설을 방할 때 설문에 응답하기로 허락한 종사자들에게 약 20~30분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회 방문시 2~3명의 직원이나 봉사자 대학생들이 한 조가 되어 시설 종사자들과 1:1 면담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 연령은 최저 25에서 최고 51세로서 평균연령은 43.2세였으며, 남자는 30.43%인 반면 여자가 절대다수인 69.5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73.91%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반면 26.09%는 미혼이거나 사별 및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고, 절대다수인 91.30%는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였으며 8.70%는 불교신자로서, 전원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학력을 볼 때, 47.83%는 고졸이하이며 과반수 이상인 52.17%가 전문대이상 졸업을 가진 사람이고, 근무기간은 평균 3.75년으로서 과반수 이상인 60.87%가 3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해왔다. 직책별 구성은 관리직(시설장, 사무장 등), 의료직(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생활지도사가 각각 30.43%, 21.73%, 47.83%였다(<표 1>).

<표 1>조사대상자 및 시설 특성

항목	집단 혹은 통계값	인원 및 시설수	비율(%)
연령		평균=43.2 범위=25 - 51	
성별	남	7	30.43
	녀	16	69.57
배우자	유	17	73.91
	무	6	26.09
종교	기독교/천주교	21	91.30
	불교/기타	2	8.70
교육 수준	고졸이하	11	47.83
	전문대이상	12	52.17
근무기간	단기	14	60.87
	3년 이상 근속	9	39.13
		평균=3.75 범위=0 - 21	
직책	관리	7	30.43
	의료	5	21.73
	생활지도(사회복지사)	11	47.83
시설종류	양로	3	60.00
	요양	2	40.00
위치	도시	1	20.00
	읍면	4	80.00
경영방식	무료	4	80.00
	유료	1	20.00

2. 조사과정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2단계 과정에 의해 이루어 졌다. 예비조사에서는 경기지역 양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3명을 방문하여 그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시설내 노인입주자의 성적욕구 표출로 고찰된 다양한 언행들 중 최근 노인생활시설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재정리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렸고 그러한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한 본 조사 질문을 완성하였다. 특히 『성적욕구 표출』은 시설내 서비스 제공도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성관련 상황(예: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히는 도중에 부득이 하게 생기는 성기노출)과 구분되고 성적인욕구가 생겨 행하는 언행으로 인식되는 행동으로 정의가 내려졌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본 조사 질문이 구성되었다.

1) 성적욕구 표출의 구체적 사례

본 연구의 성적욕구 표출은 노인의 성적욕구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오진주·신은영, 1998)에서 남자노인의 성적욕구를 남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된 언행, 그리고 강수지(1996)와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1994)의 연구에서 제시된 유사한 사례 중 예비조사과정에서 최근 국내 시설에서 종사자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목격되는 공통된 것들도 재정리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여성에게 구애를 하는 경우(예: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여성 노인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 등), ②의도적으로 성기를 옷 밖으로 노출시키는 경우(예: 바지춤을 끄르고 성기를 내밀며 씻어달라고 함), ③옷속에 손을 넣거나 걸에서 성기를 만지는 행위, ④자위 행위, ⑤시설직원, 방문자, 혹은 시설내 여성노인에 대한 성적추행이나 공격행위(껴안거나 민감한 신체부분을 만지는 행위 등), ⑥목욕이나 옷을 갈아입히는 도중 성기가 발기되는 경우, 그리고 ⑦성과 관련된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여 일상적인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2) 본조사 질문 및 분석방법

2차 본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정리된 성적욕구 표출사례 항목들을 연구문제에 관해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질문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해 정리하였다. 본조사 면담요원은 노인복지분야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원생 3명으로서,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고 연구목적, 면접의 기본 틀, 면접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사전에 조사대상 시설을 수차례 방문하여 직원과 안면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에서는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노인들의 성적욕구 표출

관련 문제행동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으며 그러한 문제행동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발생했으며 근무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나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정된 형식 없이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조사되었다. 그리고 원활한 답변을 하도록 Levesque (1993)의 연구에서 정리된 문제행동의 발생배경 사례(예: 거실을 배회하다가 앉아서 TV를 보며 다른 노인과 대화하고 있는 여직원의 목을 뒤에서 껴안는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함 등) 및 그에 대한 수발 직원들의 반응사례(예: 충격을 받아 자리를 피하고 활동프로그램 지도를 중지한 뒤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며칠 동안 그 노인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하고 상담을 요청함 등)를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질문이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략 다음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었다.

<질문 1> 귀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위에 제시한 7개 문제행동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자주 접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2> 위 문제행동은 귀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초래하였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로운 구술을 정리한 질적 연구로 정리되었으며, 면담 진술내용은 캠코더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되었고 내용 중 비슷한 영역의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범주화하여 각 범주내 유사한 내용들은 그중 가장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추려서 표준어 문장으로 재정리하였다. 특히, 녹화된 진술은 질서정연한 경우는 거의 없고 진술자가 흥분한 감정에 사로잡혀 질문과 무관한 내용이 혼합되고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진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인 이름을 대면서 그 노인의 평소 행동을 조금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 자기가 피해 본 사연을 얘기하고 그 노인과 문제가 된 다른 노인의 생활을 얘기하는 등 매우 방대한 진술이 이루어 졌기에, 그 진술을 연구문제와 부합하는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또한 그 재구성한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 졌다. 즉, 각 조사대상자의 진술로부터 특정 남성노인의 성적욕구 표출과 관련된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각각 분리 추출하여 그 추출된 내용을 표준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연결하여 하나의 사례로 새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 및 고찰에 진술사례가 인용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여 재구성된 각 인용사례들은 영역별로 범주화하여 고찰하였는 바, 각 사례들의 원인 및 배경을 ①시설내 여성노인에 대한 집착, ②인지능력 장애에서 오는 행동, 그리고 ③여성과의 장시간 접촉후 서서히 생기는 충동 등 3개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분류하고 그 각 광범위 영역을 다시 2~3개씩의 중간규모 하부영역으로 세분하여 그 세분된 하부영역내에 각 인용사례들을 정리하였다.

IV. 논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정리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도 있고 한 사람이 한 가지 항목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답변한 경우도 있어 분량이 매우 방대하였고 유사한 내용들도 많았는데 그중 독창적이며 상세한 것만을 추려 23명으로부터 총 21개의 진술이 정리되었다. 질문에서 예시된 구체적인 성적욕구 표출행동 사례중 여성에게 구애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시설내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을 좋아하면서 그 여성에게 오랫동안 집착하여 발생하는 행동이며, 의도적으로 성기를 옷 밖으로 노출시키는 행동이나 옷속에 손을 넣거나 곁에서 성기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등은 인지능력 장애와 성적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행동인 것으로 고찰되었다. 그리고 시설직원, 방문자, 혹은 시설내 여성노인에 대한 성적추행이나 공격행위,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히는 도중 성기가 발기되는 경우는 젊은 여성과의 장시간 접촉을 통해 욕구가 서서히 증가하거나 인지능력 장애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고 있으며 끝으로 성과 관련된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여 일상적인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시설거주 노인들의 성적욕구중 여성노인들이 남성 노인들에게 한 것으로 진술되는 사례나 동성애로 추측되는 소수의 사례들은 응답자들의 명확한 판단이 결여되고 치매 증상으로 추측되는 것으로 진술되었기에(예: 어느 할머니이 할아버님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중얼거리는데 그게 좋아해서 그러는 것인지 미워서 욕하느라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음)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남자노인들에 의해 여성을 대상으로 표출되는 것만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표출 대상은 시설내 여성노인, 여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성적욕구 표출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을 우선 광범위한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1. 시설내 여성노인에 대한 집착, 2. 인지능력 장애로 인해 수치심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의 무작위적 행동, 3. 여성과의 장시간 접촉 후 서서히 생기는 충동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선 시설내 여성노인에 대한 집착은 ①시설내 일과시간이나 프로그램 도중 특정 여성 곁에 있으려고 노골적으로 시도하여 불편을 초래함, ②여성 노인 방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심야에 비상상황 발생, ③한 여자를 놓고 여러 남자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치정관계로 인한 불화를 초래함으로 나타났으며, 인지능력 장애로 인해 수치심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은 ①젊은 여성방문객 앞에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작거리 봉사자들을 충격에 빠뜨림, ②여성 봉사자의 팔이나 등을 어루만지면서 추근거리 당황하게 함, ③방이나 화장실이나 으스스한 곳에서 자위행위를 시도하여 서비스업무가 지체됨, 그리고 ④심한 성추행 시도로 인한 시설 이미지 추락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여성과의 장시간 접촉 후 생기는 충동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①생활보조원과 봉사자가 목욕을 시키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도중 성기가 발기되거나 스스로 괴성을 질러 서비스가 지체됨, ②성적욕구에 대한 향수가 습관이 되면서 성적 접촉이 시설내 주요 서비스(예: 물리치료, 운동 등)의 조건으로 발전함, 그리고 ③불필요한 오해와 피담이 생겨남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욕구 표출은 빈도가 매우 높아 거의 매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몇 년에 한번 경험하는 드문 경우도 있는 등 그 범위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서 진술된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종사자가 인식하는 해결방안 등등을 영역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그 영역별 핵심사항을 도표화 하고자 한다.

1. 시설내 여성 노인에 대한 집착

시설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남자노인들이 집요하게 성적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종사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지만 그 문제점이나 피해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아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있지만 많은 노인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모두 피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는 등 그 문제의 심각성이 사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종사자는 그러한 성적욕구 표출이 문제점인 동시에 삶의 의욕으로 보고 동정심을 갖고 방치하다가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은 시설내 특정여성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행동은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문제의 노인을 제지하고 여성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하여 다른 노인들에 대한 균등한 보살핌에 방해가 되는 큰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그런 문제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이 집중되어 모든 노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려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여성노인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한편

그러한 애정집착을 오랫동안 접하면서 문제의식이 서서히 둔화되고 그것을 노인의 삶의 활력이나 건강상태, 기분의 긍정적 척도로 인식하여 방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공격적 행동이 되는 것을 감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 항상 곁에 있으려고 하는 행동

여성노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성적 욕구가 표출되는 것 중 시설관리상 가장 빈번하게 인식되는 문제점은 일상생활 프로그램 관리의 무질서로 나타난다. 식사시간에 좋아하는 여성과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 들면서 그 여성노인과 충돌이 생기고, 가까이서 자주 쳐다보고 말을 걸어 그 노인이 피해 다니게 만들고, 그 여성노인과 친한 다른 여성 노인들도 결국 그 문제의 노인이 다가오면 자리를 피하면서 일과프로그램 관리가 매우 힘들어 지고 그 노인에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개방적인 애정표현은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저소득층 시설거주 노인의 특성과 매우 상반되는 문제행동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수동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일상생활유지에 매우 수동적이고 의욕저하가 현저하다(이기순, 1994).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는 10년 전 노인주거시설이 80여개에 불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보건복지부, 2004)이 발효되기 이전의 상황이기에 현재보다 훨씬 사회경제상태가 열악한 극빈노인들의 특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0도 이후에는 대폭적인 시설확충이 이루어져 무료 시설 입소기준도 완화되고 유료시설도 늘어나 다소 수입이 있고 일상생활 유지능력이 있는 노인들도 시설에 많이 입소하면서 욕구를 개방적으로 표출하는 노인들도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설노인의 행동방식도 많이 개방화되고 적극적인 표현과 자기중심적 행동을 수반하는 신세대 특성을 보이기에, 종사자들도 이제는 숙식과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일방적 원조자라기보다는 다양한 돌발적 행동을 관리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례 #1: 미모의 여성노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습관이 됨>

덩치가 매우 큰 75세 남자노인 한분이 키가 크고 날씬하고 옛날에 유흥업소에 있었다는 60대 후반 여자 어르신 한분을 거의 하루 종일 일정한 거리에서 따라다니다시피 한다. 음악공연 하러 청소년들이 방문할 때나 어르신 생일파티 하느라 외부인들 방문했을 때 남들 보기 민망해 그 할아버님을 일부러 누구 하나가 따라 붙어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 해야 하는 큰 불편이 따른다.(여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시설이 웃음거리 소문의 주인공이 됨>
어느 할아버님이 어느 할머니를 좋아한다는 게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거의 스토킹 수준이다 보니 소문이 외부에까지 나서, 우리시설이 자랑거리 명물이 된 것인지 웃음거리가 된 것인지 혼돈스럽다. 동네사람들도 다 알아서 거기 누구 누구가 연애한다며? 하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꺼낼 정도가 되었다. 이게 결국 우리 시설을 웃음거리로 만들까 걱정이 된다.(여자 간호조무사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3: 그 할아버지만 나타나면 모두들 자리를 피함>

서로 좋아하는 게 그 정도가 심해 가는 곳 마다 꼭 부부행세하러 따라다니며 참견하다보니 다들 꼴불견이라고 싫어한다. 그 문제의 할머니(좋아하는 대상)과 함께 모여 있다가 그 할아버님(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만 나타나면 다들 부담스러워 일어나서 헤어지다 보니 프로그램 관리가 어렵다. 특히 마늘 까거나 김치 담그는 작업을 하러 할머니들이 모였다가 그 할아버님이 다가오면 다들 일어나 피하는 바람에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남자 시설장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4: 그게 유일한 삶의 기쁨이란 생각에 측은함도>

노년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그를 위해 뭔가를 하기위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한 가지 남은 삶의 목표란 것을 지켜보면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이해와 동화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기에 나도 심한 갈등을 느낀다. 같은 남자로서 할아버님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격려하다 보니 문제를 객관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미리 예방할 일(접근 하는 것을 제지함)을 사고가 생기고 나서(누군가 불평하고 노인들이 자리를 뜨고 나서)야 수습하는 문제가 생긴다.(남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2) 여자노인 방에 들어가려다 비상상황이 발생

좋아 하는 여성노인 방에 들어가려 시도하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모든 응답자가 경험해 보았다고 진술할 만큼 매우 일반화된 일이다. 특히 방문자도 적고 외출기회도 적은 농촌지역 무료 시설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그런 일을 경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밤중에 여자노인 방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여성노인이 비명을 질러 숙직근무자가 비상 출동해야하는 긴급상황을 요하거나 피해자의 방에 특수 보안장치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욕구표출은 농어촌지역 시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농촌지역은 입주자가 적어 한두명 노인이 큰 방을 사용하여 심야에는 매우 무료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남의 방을 무단 침입하려는 욕구도 가중되고 받아들이는 여성은 더욱 공포감을 느끼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남자노인 경우 자식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후 버림받고 남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오면서 수치심이 적어지고 누구에게 알려져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호기심과 애정이 함께 작용하여 이러한 행동을 자주 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5: 적막한 산속에서 한밤중에 여성노인들이 비명을 지름>

우리 시설이 적막한 산속에 있어서 그게 더 큰 문제로 비화된다고 믿는다. 밤이 되면 너무 조용하고 창밖에 아무 다니는 사람이나 차 불빛도 안보이고 갑갑하니깐 좀 건강한 남자분은 심심해서 못견디어 일어나 서성이다가 결국은 어디 해볼거라곤 남의 방에 찾아가는 것밖에 없으니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평소 관심을 가진 여자노인의 방에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려다가 그 방안에 있는 다른 여자노인이나 맞은 편 방 노인들이 비명을 지르는 일은 한 달에 한두번은 꼭 생기는 일이지가 속직근무자들은 으레 그 문제의 방 앞 복도에 불을 켜두고 한두번은 그 앞을 순찰하는 게 일상적인 지침이 되었다. 적막한 산속에서 한밤중에 누가 비명을 지르니 자원봉사자들은 더 무서워 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문제 할아버님을 상담해 보면 밤에 너무 적막하고 무료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소연 한다.(여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6: 특별관리를 해야 함>

으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방에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그 문제 노인을 현관 앞 당직실 앞에 있는 방으로 옮기는 등 별도의 관리를 하게 된다.(남자 사무장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7: 다른 여성노인 방과 마주보게 하고 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함>

어느 시설이나 적막한 나날이 지속되다 보니 그 돌파구로서 사랑이 싹트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남녀 분리관리가 원칙이기에 인기 있는 할머니 방은 항상 2인 사용으로 하고 주무실 때 외에는 문을 항상 열

어놓고 발을 치게 하고 맞은 편 방에 다른 할머니이 항상 볼 수 있게 하는 등 신경을 많이 쓴다.(남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3) 치정관계로 인한 불화

치정관계로 인한 문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모든 응답자가 그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진술할 만큼 매우 일반화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애정문제로 인한 질투는 여성 노인 한명을 사이에 두고 두세 명 남자들이 서로 감정대립을 하다가 심할 경우, 치매증세로 인한 우발적 행동과 혼합되어 심한 욕설, 삿대질, 심지어는 먹살을 잡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으로 비화되기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종사자들이 노인들과 면담한 것을 근거로 견해를 피력한 바에 의하면, 방문자도 적고 외출기회도 극도로 제한된 농촌지역 무료 시설은 시설내 노인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하는 것이 가장 큰 정서교류이기에 이러한 정서적 의존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치정관계가 비약되면 여성 노인들 사이에서도 남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노인에게 대한 질투가 생겨 불화의 원인이 되는 수도 있기에, 결국은 노인입주자의 화합을 위해 관찰하고 통제해야 하는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8: 어느 시설에나 있는 필요악>

우리 시설에도 여자 어르신 한 분 놓고 남자 어르신 두 세분이 다투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있다. 그리고 그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다른 시설에서도 항상 있는 일이다. 어디 나가서 즐겁게 구경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어르신들하고 어울리는 게 유일한 낙이다 보니 항상 마주보고 얘기하면서 정이 가는 누군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관찰하여 느낄 수 있다. 그건 내가 이곳에 산다고 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지만 그게 결국은 노인들 간 갈등을 키우는 문제를 야기하기에 그대로 둘 수는 없고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조바심 내며 감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여자 물리치료사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9: 드라마처럼 재미있다가도 감당할 수 없는 폭력사태를 불러옴>

어르신들이 삼각관계에 빠져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때로는 멜로드라마나 영화 속 스토리 같아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순간적인 감상일 뿐이다. 치매 증세가 시작되는 분들의 치정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력사태로 발전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경

우가 몇 달에 한 번씩은 있다. 그냥 소리 지르고 샷대 질하다가 갑자기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둘러 상처가 나는 일이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다.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치매증세가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라 생각된다.(여자 간호사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10: 여성노인 사이에서도 낙인이 짙히게 됨>

여자 어르신 한명을 두고 남자어르신들이 벌이는 치정문제는 그 여성노인을 같은 여성노인들도 피하고 따돌리게 하여 결국 시설내 외톨이로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 여성노인을 피하고 비방하는 다른 여성노인들과 면담해보면, 괜히 그 여성 곁에 있다가는 치정으로 인한 감정대립(예: 고향이나 싸움)을 가까에서 보며 불편을 겪는다는 생각, 그리고 괜한 질투심이 작용하여 그 여성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2. 인지능력 장애에서 오는 행동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생활시설은 대부분 도시 근린시설에서 떨어진 교외나 농어촌지역에 있고 방문자도 한정되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노래방이나 한글교실과 같이 단조롭고 변화 없는 프로그램의 반복 속에 생활한다(동명노인복지센터, 2005). 더욱이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과는 달리 불우하게 살아오거나 가족의 보살핌이 결여된 생활을 겪으면서 굳어진 피해의식과 수동적 사고방식은 무료하고 단조로운 시설환경에서 더욱 악화된 정서장애로 고정화되어 입소 후 세월이 흐르며 고령기에 시작되는 치매 초기증세와 복합적인 작용을 하여 통제하기 힘든 감정조절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한국치매가족협회, 2005; 전남노인복지시설협회, 2004). 그리하여 성적욕구를 표출함에 있어 남의 시선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남이 있으면 더욱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는 등 인지능력 장애를 동반한 무분별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시설 거주 노인 특유의 심리적 공황과 인지능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제하기 힘들고 자원봉사자들을 극도의 충격으로 몰아넣어 다시는 올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지능력 장애상태에서의 성적 욕구 표출은 항상 대하는 시설내 여성노인이나 직원에게 가해지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자원봉사 하러 방문한 대학생이나 주부들에게 돌발적으로 나타나기에, 시설노인을 접한 경험이 적은 젊은 여성으로 하여금 큰 충격에 빠져 봉사활동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남자노인들은 항상 고립된 공간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면서 연대감과 만족

감을 얻기 위해 성적인 농담을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심지어는 함께 모여서 성기를 노출시키거나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김태현·한희선, 1966; 오진주·신은영, 1998). 이러한 행동들을 노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볼 때,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욕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삶의 질 향상의 한 가지 방편으로도 인식되고도 있다. 즉 성에 대한 관심과 약간의 표현이, 어느 면에서는 노년기의 고독감 해소와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윤희제 역할을 한다고도 인식되어 유급직원으로 종사해온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오랫동안 접하면서 체지하거나 회피하는 대처방법에 익숙해지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김태현·한희선, 1966) 인지능력이 결여된 무분별한 표현이 그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작용하여 봉사활동을 꺼리고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게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젊은 여성 방문자 앞에서의 돌발행동

젊은 여성 방문자 앞에서의 돌발적인 행동은 주변에 수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 시설에서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발생빈도가 적은 반면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특성을 지닌다. 인지능력 장애를 동반하여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으로 느낀다거나, 그러한 행동이 초래하는 충격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처음 방문한 젊은 여성 앞에서 성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여성의 민감한 신체를 더듬거나 겨냥하는 행동은, 성추행 등의 불미스런 사고를 염려하여 봉사활동이나 친선방문을 중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시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초래함으로써 시설관리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노인들이 특별히 처음 오는 방문자에게 돌발적으로 성적욕구 표출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설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자상하고 관대한 태도의 여성스러움을 접하는 순간 충동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즉, 처음 시설을 찾은 젊은 여성들이 순수한 동정심에서 노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상하게 대하는 순간 애정표현으로 착각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봉사활동 관리지침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동력과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면서도 온화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여성봉사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여 큰 정서적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남녀봉사자들이 규칙적으로 활동지점을 바꾸거나, 매력적인 외모나 유순한 성격으로 인해 노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끄는 봉사자는 한곳에서 오랜 시간 한두명 노인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여러명 노인 및 봉사자들과 함께 건전하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집중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제언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사례 #11: 위로하는 것을 애정표현으로 오해함>

작년에 딱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김장을 도와주러 찾아온 지역사회 부녀회원이 어르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팔동무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그 여성의 가슴부분에 손을 넣어 어루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사고가 일어났다. 치매가 있는 분이라 아마 무의식 속에 애정표현이나 젊은 날의 회상으로 혼동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여자분이 비명을 지르고 놀라 달아나고 나서 한동안 동네에 다 알려지고 봉사자 방문이 뜸해졌다. 하여튼 그런 일은 일방적으로 시설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이다.(여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12: 노인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혼자 다가가 것이 화근>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드문 일이지만 일단 터지면 무서운 일이다. 여름날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가 혼자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치매노인에게 다가가 간식을 드리다가 비명을 지르며 놀라 달아난 적이 있다. 그 어르신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엄지손가락으로 승리를 표시하며 웃고 있었다. 매우 자랑스럽다는 듯이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무리 노인이지만 성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상태로 다가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여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13: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다가 성희롱으로 비화됨>

몇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끔 있는 일인데 생일파티나 팔순기념 행사같은 큰 자원봉사 이벤트 프로그램 중 함께 노래하고 춤추느라 서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있다가 치매 어르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원봉사 여성의 허리나 등을 어루만지고 그 순간 봉사자는 얼굴이 빨개지고 어색해 하며 자리를 뜨는 일이 있곤 한다. 노골적인 추행은 아니지만 서로 피부가 닿다가 순간적으로 그리 된다.(여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2) 여러사람의 봉사활동을 지체시키는 행동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성적욕구 표출은 젊은 여성 한 사람을 목표로 하여 가해지는 행위 외에도, 시설내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서비스 활동을 지체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위행위와 통제불능의 성적 공격행위가 그 예인데, 자위행위로 인해 담요

와 이불에 사정한 흔적이 역력하여 여러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그리고 초고령 노인의 필사적인 성적 공격행위로 인해 시설직원이 모두 모여들어 공격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임종을 앞둔 90세 암환자 노인이 혼수상태에서 간병인 여성의 신체를 강하게 움켜쥐고 놓지 않아 의료진이 제지를 한 매우 특이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비록 한 명 노인의 사례이지만 여러 명 여성에게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해진 일기기에 결국은 자원봉사 전에 안전 교육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14: 자위행위를 목격하고 충격에 빠짐>

어쩌다 몇 달에 한두 번 있는 일이다. 어르신이 아무 데서나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인지 그냥 만지는 것인지 분간하기 힘든 이상한 행동을 한다. 외진 나무그늘 밑 벤치에서도 그리고 발 둔덕에서도 그리고 방이나 화장실에서도 그런다. 여자라면 누구나 그런 행동을 보고 나면 그 노인을 피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어느 노인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시설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힘들어 진다는 의미가 된다. 월급받고 일하는 나는 그냥 참고 적응하느라 노력하지만 봉사활동 나온 여학생들은 그런 거 보고나면 다신 못오겠다고 한다. (여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15: 자위행위 흔적을 대하며 메스꺼움 느낌>

거의 매일 겪는 일은 자위행위 흔적을 보며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도 성욕은 왕성한 것 같아 특히 치매 어르신 방에 그런 자국이 빈번하다. 어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오늘은 담요나 바지에 하얀 얼룩이 여기 저기 있는데 틀림없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대로 묻혀 놓은 자국이다. 직원들은 습관이 되어 노인들이 그런 낙이라도 지니고 사는 것을 이해하지만 봉사자들은 그런 일을 겪은 뒤 봉사활동 중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기에 작업투입 할 때 그런 거 안보는 일 플라주느라 불편이 생긴다.(여자 간호사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16: 90세 노인이 40대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고 놓지 않음>

한 사람의 일이긴 하지만 벌써 몇 년째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그 어르신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기곤 한다. 건강이 매우 나빠 거동도 불편하고 심한 치매이기에 항상 누군가 일상생활 모든 것을 도와드

려야 하기에 옷을 입혀드리거나 몸을 닦아 드리거나 밥을 떠먹이는 모든 일들을 생활지도사나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는데, 워낙 그런 성적 공격행동을 우려하여 40대 후반~50대 여성들에게 봉사활동을 부탁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불시에 공격적인 행동을 심하게 하여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것도 꼭 가슴부분을 힘껏 움켜쥐거나 심할 경우 그곳에 입을 대고 빨려고 하다가 피해 여성이 울부짖고 여러 사람이 달려붙어 팔을 비틀어 떼어놓아야만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시설이 소란스러워지고 어떤 때는 세상에 별일 있다고 모두들 웃어넘기기도 하고 심각하게 대책 의논도 하지만 여하튼 그런 일이 있으면 시설 전체가 업무가 중단되고 숙연해 진다.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한 분노와 경악, 그리고 사력을 다해 성적욕구를 지키려는 한 인간의 아픔을 바라보는 슬픔이 혼합되어 중요심 반 연민의 마음 반이 섞인 묘한 감정이 우리 모두를 한동안 마비시킨다. 이제는 위암 말기가 되어 임종간호단계에 다다랐는데도 간병하는 주부의 가슴을 움켜잡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임종이 가까워지고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성욕이 생기는지 수수께끼다.(남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3. 여성과의 장시간 접촉 후 서서히 생기는 충동

이제까지 소개된 시설내 남자노인들의 성적욕구는 노인 자신의 비정상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돌발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여성노인에게 짐작하는 이상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충동적 행동 외에도, 별다른 성적욕구가 없고 고령으로 신체능력이 극도로 약해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노인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성적충동이 서서히 쌓이면서 간헐적으로 욕구가 표출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성적욕구에 대한 습관적인 애착이 생기면서 시설내 서비스에 대한 조건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으나 시설에 거주하면서 성적욕구가 싹트는 특수한 경우인데, 거동이 매우 불편한 노인에게 여성들이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처음에는 아무런 감각을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성적욕구가 생기면서 여성의 손을 잡거나 성기가 발기하거나 약한 괴성을 지르거나, 더 나아가 그러한 성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의 접근을 선호하는 표현을 하는 습성이 생기는 것이 그러한 사례다. 더욱이 젊은 여성이 포함된 봉사 팀이 목욕을 시켜드릴 때는 매우 협조적이고 활기에 찬 반응을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궁극적으로는 선호하는 여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조건

으로 요구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특정 여직원이나 봉사활동 주부를 애인으로 착각하여 시설내에서 마주칠 때마다 손을 내밀고 다정하게 대하는 현상으로까지 진전되기도 한다.

1) 목욕과 옷 갈아입는 중에 서서히 싹트는 욕구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고 의사표현도 미미한 노인이 젊은 여성의 장시간 수발을 접하면서 성적 욕구가 서서히 싹트는 일은 대부분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옷을 다 벗고 누운 상태에서 온수를 틀어놓고 봉사자들이 온몸을 손으로 문지르는 작업을 30분 이상 하면서 성기와 항문부분을 닦을 때 성기가 서서히 발기되면서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침대에 누워 속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옷갈아 입히는 여직원의 손을 움켜잡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렇듯 처음에는 아무런 욕구표현이 없다가 장시간 접촉하면서 서서히 생기는 성적욕구는 일단 80세 이상 고령이며 신체기능이 크게 저하된 분들의 반응이기에 여성들에게 충격이나 공포감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어린 여학생 봉사자는 수치심을 느끼기에 일단은 중고령기 여성을 중심으로 수발을 하도록 배려해야 하기에 수발인력 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례 #17: 나이 지긋한 여자만을 골라서 해야 하는 어려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다.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을 실수하는 어르신을 깨끗이 씻겨드리지 않으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가끔씩 방에 들어가 욕실에서 씻겨 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한다. 남자들은 씻겨드리는 자상함이 부족해서 그 일은 여자가 꼭 누구 하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평소에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하시던 분이 목욕을 하면서 알몸 상태에서 여자를 접하다보면 발기하거나 약한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부여잡는 수가 있다. 큰 위험은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교육상 보아서 안 되는 일이기 꼭 나이 지긋한 여자 누구 하나는 있어야만 하는 일이 되다보니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나이 지긋한 여자 한분 시간 날 때를 봐야 되는 게 불편하다.(여자 간호사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18: 기쁨조가 되어서라도 어르신을 위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은 시설 전체 어르신 중에 한두 명뿐이다. 하지만 그 한두 분을 위해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접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고 또 참는다. 직원이든 봉사

아줌마든 하녀든 젊은 여자가 목욕을 시켜주고 나면 뭔가 성적 욕구를 느껴 본 게 좋은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생기가 돌고 밥도 잘 드시고 기분도 크게 나아진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목욕할 때가 지났는데 별로 불결하지 않아 안 해드리면 밥투정도 늘어나고 생기를 잃은 것이 뚜렷이 느껴지고 그래서 목욕을 시켜드리면 금방 또 좋아진다. 그리고 목욕시킬 때 그 부분(성기)을 세계 오래 닦아 드리고 나면 금방 활발해 지는 것을 느끼기에 목욕시킬 때면 일부러 그 부분을 째 쥐고 흔들어 주기까지 한다. 말하자면 여자들이 기쁨조가 되는 것이다. 속된 말로 기쁨조가 되어서라도 어르신들의 생기를 찾아드릴 수만 있다면 희생을 하자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 자존심을 접고 희생하자는 각오로 마음을 다지는 것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겪어야만 하는 숙명적인 일이 된 것이다. 목욕을 하면서 느끼는 그 성적 쾌감을 알게 된 노인은 이제는 목욕을 안 하면 시무룩하고 생기가 없어지고 목욕시키던 여자들을 뵈히 바라보며 뭔가를 바라는 듯한 표정을 강하게 보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목욕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알고 씻겨드리면 또 금방 좋아지고 그러다가 한동안 뜬다면 또 생기를 잃고 뵈히 바라보면서 뭔가를 바라는 눈치를 강하게 주고.....이러다 보니 이제 그 목욕이 삶의 조건이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말하자면 여자가 목욕시켜드리는 것이 시설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여자 시설장 구술내용 재정리).

2) 떠도는 오해와 괴담

앞서 소개된 내용 중 공격적이며 돌발적인 성욕구 표출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처럼 나타나 큰 충격과 혼란을 주지만 그 사건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빈발하지는 않기에, 봉사자의 연령대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배치하는 등 그때그때 적절히 대처하여 수습하면 시설 운영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문제노인을 제지하거나 설득하는 기술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설에서 제공되는 주요 일상생활 보호 서비스 도중 서서히 성적 욕구가 짝트면서 보이는 반응은,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노인 자신도 성적욕구가 서서히 짝트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냉소적인 오해와 괴담을 낳아 시설 이미지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유료시설 경우 노인 입소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성적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목욕을 자주 시킨다는 괴담이 생기거나, 식욕이 감소한 노인에게는 목욕을 시키

며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는 게 특효약이라는 근거 없는 오해와 괴담이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 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고찰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와 괴담은 시설운영의 순수성과 복지지향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 자원봉사자 방문이나 후원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낳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례 #19: 우리시설에 오면 아침마다 거기를 한번씩 만져준다는 소문>

가끔씩 아는 사람 만나면 장난인지 농담인지 아니면 정말 진담으로 그러는지 혼동스러운 말투로 물어보는 게 몹시 불쾌하고 내가 이런 복지활동을 하는 자부심에 근본적인 회의가 들 때가 있다. 그 시설은 아침마다 할아버님들 거기(성기 부분)를 냉수마사지 해주어 정력 회복시켜 주는 곳이야고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대소변 못 가리는 분 청결히 해드리려 하는 힘든 일인데 어르신의 생기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을 꼭 그런 방향으로 몰아세우는 게 억울하다.(남자 시설장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0: 그게 보약보다 좋다는 소문>

우리 시설은 인적이 드문 외진 산속에 있고 그런 시설에서 일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힘든 일이다. 그런 일을 하는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만 때로는 그런 좀 희귀한 일을 하면서 신비로움 같은 걸 가진 줄 오해하는 분들도 많다. 쉽게 말해 TV프로그램에 나오는 무슨 신비의 세계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도 있는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르신 들 목욕시켜드리면서 그곳(성기)을 어루만져 드리는 게 고의적인 고객 유치 전술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주면 보약보다 좋아 장수한다고 믿어 거기가면 그런 거만 서비스 받을 수도 있냐고 묻거나 부모님 기력 쇠하면 모시고 가면 그 서비스만 받을 수도 있냐고 장난삼아 묻는 분도 있다. 그럴 때면 정말 복지사로서의 긍지가 손상되어 너무 허무하다.(남자 시설장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1: 어린 학생들이 꺼리게 됨>

뭘니 뭘니 해도 노인들의 성과 관련된 소문이 나면 중고등학생 들의 발길이 한동안 뜸해지거나 혹은 오더라도 괜히 서먹서먹하고 조심스러워 하는 게 가장 큰 불편이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시설 분위기를 살리고 이런 저런 일손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괴소문 한번 나면 며칠은 뜸해져서 일손이 달리는 게 불편하다.(여자 생활지도사 구술내용 재정리)

V. 대처방안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노인들이 입소하여 오랫동안 생활하는 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직접 경험한 노인들의 성적 욕구 표출 행동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에 대한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성적욕구 표출은 인간의 자연스런 생활환경인 가정과 지역사회를 떠나 사회교류와 문화해택이 크게 줄어든 장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노년기 특유의 고립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함에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300여개 노인생활 시설중 85% 이상이 무료시설인 실정(보건복지부, 2007)을 반영한 것이기에,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개방되고 유료시설이 보편화되는 시기에 적용될 수 있는 고액납부 유료시설 운영에 참고하기에는 큰 제한이 따르며 중류층 이하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실비나 무료시설에 주로 참고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성관련 행동이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일반적인 현상을 조사한 초보적인 것이기에 종사자의 연령과 근무기간, 학력등 사회 인구학적 요인의 차이에 따른 대처기술의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종사자들의 다양한 배경에 따른 차별화된 반응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개개인 별로 차등화된 전문적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남자노인이 여성에게 가하는 것이 외부로 노출된 행위에 한해 고찰한 것이고 여성노인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고찰이 없는 일방적인 것이기에 시설내 남성노인들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참고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남자노인의 성관련 행동에 대한 여성노인들의 입장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고 여성노인들이 대처할수 있는 행동기술 개발 등 양성평등 입장에서 보다 균형 잡힌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 이르러 심신의 통제기능이 저하되어 불경스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도 희생정신을 갖고 몰입하여 봉사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노인들의 성적욕구도 인간의 자연스런 모습 중 하나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역시 지역사회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그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젊은 층의 노인에 대한 거부감이 누적되어 봉사활동의 많은 영역 중 흥미위주 활동만 선호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설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노인들의 성적욕구에 대해 실질적인 현상을 인지하고 적용하면서도 점차적으로 노인과 친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식사수발이나 청소, 목욕, 산책 등 이제까지 노인주거시설에서 이루어진 일상적인 활동이외에, 노인들의 성적욕구가 표출될 수 있는 유사 상황을 미리 자연스럽게 견학하면서 나중에 발생할 돌발적인 조우에 의한 심리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에 제시한 제한점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표 2> 참고).

첫째, 노인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고려하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인사,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성적욕구에 대한 이론적인 심층교육 및 의견교환 워크샵 등이 주기적으로 이행되는 관리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에서 성희롱방지 및 양성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집단상담이 활발하듯이,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도 주기적으로 봉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성적욕구가 발생하는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해 강의하고 다양한 대처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시설운영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보다 구체화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 이내에 2004년도의 3배가 넘는 수의 요양원을 증설하고 10배가 넘는 수의 주간보호소를 증설하며 20배가 넘는 수의 단기보호시설을 증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정부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정책은 건강한 노인들의 주거시설인 양로원이나 노인주택에 대한 지원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의료기능이 강화된 요양원과 단기보호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지만, 건강한 노인들일지라도 열악한 사회적 배경에서 살아오다가 고립된 시설에 들어와 그러한 고립적 상황에서 비롯된 성적욕구 관련 문제행동이 시작되는 사례가 본 연구에서 고찰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성적욕구와 관련된 문제행동을 비롯한 특수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요양시설 확충정책과 더불어 주거복지시설 관리 강화방안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시설 관리방안 일환으로서, 성적욕구 행동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성을 가진 노인이 돌발적으로 성적공격을 보일 경우에 대비한 대처요령과 당직간호사의 개입지침에 관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등이 주거시설에 보급되어,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비영리법인 노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입소노인들의 상호 교환제도가 지자체 관리하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성적 욕구중 상당수는 시설내 여성노인이나 친숙해진 직원 및 봉사자에게 가해지며 편중집적인 정서장애와 혼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노인을 다른 지역 시설로 이동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노인입소자를 시설끼리 맞교환하는 사례는 없었고 더욱이 성적욕구 표출을 계기로 퇴소조치가 발견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남자노인들간 폭행사건의 대처방안으로서 지자체가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무료시설 경우 동일 지자체 내 다른 무료시설로 옮기는 사례가 보고된 점을 감안할 때(작은자의 집, 2006) 특정인에 대한 집요한 성적욕구 표출의 해결방안으로서 우선 동일 지자체내 시설끼리 문제노인들을 교환함으로써 특정한 집착현상으로부터 획기적인 기분전환이 되는 방안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친숙한 동료들을 떠나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이전하면서 생겨나는 정서적 충격이나 생활적응 문제등 다양한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까운 시설끼리 상호 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보완하는 등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풀 네트워크(Pool Network) 제도가 구축되어 전문성을 요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남녀 혹은 연령대별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순환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설연합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성적욕구로 인한 문제점을 가진 노인을 항상 대하면서 경험하는 충격을 완화하고 노인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들도 다양한 모습의 노인들을 접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편중되지도 않고 건강한 노인들만 쉽게 대하지도 않은,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순환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욕시키거나 옷갈아 입히기와 같이 노인 한명의 신체부위를 밀착하는 봉사활동에 있어 반복되지 않는 남녀 1개조가 투입되도록 하는 등 매우 세부적인 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목욕이나 옷갈아 입히는 시간대를 시설별로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시간대에 남녀 자원봉사자들이 적절히 투입되도록 하는 등 시설간 인력 및 특정 서비스 정보 공유시스템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지역에 고립된 시설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봉사활동 적응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시설노인의 성적욕구 표출은 격리된 생활에서 비롯된 반사적 행동이며 주위 시선이 드문 녹지공간에서 더욱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특히 텃밭과 숲이 있고 노인들의 고립생활 가능성이 높은 농촌지역 시설을 주요 목표로 하는 봉사자 적응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적응프로그램에는 성적욕구 표출행동 사례 및 효과적인 대처 사례에 대한 의견교환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성적욕구를 표출하는 노인들도 그로 인해 직원이거나 봉사자가 기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응 프로그램에는 우울과 허무감에 사로잡혀 봉사자들에게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노인들과 봉사자들이 성욕

구가 표출될 기회를 줄이고 건전한 활동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활동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학생 봉사자가 남자노인과 장시간 대화만 하거나 함께 산책을 하는 것 보다는 여러 명이 한 개조가 되어 목표가 설정된 흥미 있고 역동적인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적응과정이 개발되어 여성봉사자들에게 훈련이 된 다음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우울이나 치매노인에게 시험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즉 회상을 통한 미술치료와 집단 원예치료가 성욕구 표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회상은 노인들에게 개인적인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통합함으로써 자아정체감 형성을 도와주며, 미술치료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갈등을 시각화 표현하고, 자신들이 처한 심리적 문제해결과 남은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원예치료는 살아 있는 생명인 식물을 통해 무생물과는 다른 감응을 받게 되고 다양한 식물을 통해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고 대상자의 행동과 관심에 따라 식물의 상태가 달라지고 또 대상자는 그런 식물의 반응을 보면서 자부심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이인수, 2005). 따라서 이러한 회상을 통한 미술치료나 원예치료를 활력적인 여성봉사자와 노인들 여러 명이 어울려 공유하면서 목표지향적인 노력을 통해 욕구불만을 해소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노인에게 필요한 수발봉사를 한다면, 남성노인이 여성의 성적인 면에만 집착하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건전한 교류와 발산의 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다섯째, 시설노인들의 성관련 문제를 일차적으로는 노인들 스스로 자조집단 구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지도를 추진하여야 한다.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 실천기술에 있어 살아오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외되어 사회속에서 원만한 활동을 구사할 능력이 저하된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파위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Gutierrez(1990)는 임파워먼트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리된 상태에 있는 집단의 갈등모델에 근거해서 우선은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 접근과 집단적 접근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임파워먼트 중심 실천의 결과로 개인은 자존심, 자립심, 권리의식,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고 대인관계측면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원조를 요청하거나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사회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임파워먼트 접근을 노인시설 성문제에 적용해 볼 때, 특히 도심에서 떨어진 시설에서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자존감을

상실하여 돌발적인 성적욕구 표출을 자기효능감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노인들에게 스스로 이러한 성문제를 토론하고 통제하는 자조(自助)모임(self-group)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서구선진국 노인생활시설 입주자들도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와 직원간 폭력이나 갈등에 대한 일차적인 심의와 해결권고안을 제시하도록 노인시설협회에서 권장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AAHS, 2002), 우리나라 시설에서도 이러한 자조활동을 기초로 한 임파워먼트 지도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시설내 남녀노인의 애정문제나 특정 직원에 대한 성적욕구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노인들간 관찰 및 의견교환을 근거로 남녀노인 공동생활공간 마련을 권고하거나 여직원의 복장이나 행동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는 등 노인 입장에서 우선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생활지도가 시도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거시설과 요양시설이 동일한 장소나 가까운 곳에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관리되는 선진국형 통합형 연속

보호 시설(CCRC: Continuing Care and Retirement Community: Pynoos & Regnier, 2000)이 대중화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한 노인들과 요보호 노인을 2분화하여 주거시설이나 의료시설로 구분되어 분류하는데(보건복지부, 2004),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주거시설에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성적욕구가 표출될 경우 그 문제행동은 일상적인 습관으로 미화되거나 혹은 나이 어린 봉사자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여 현장을 회피하는 식의 무분별한 방법으로만 대처되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통한 적극적 대처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주거시설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성적욕구가 표출될 경우, 주거시설에서의 일상적인 공동활동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도 부분적인 요양관리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과 요양시설이 동일 법인내에서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문제행동 노인의 평소 생활습성과 기질을 익히 알고 있는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인접 요양시설과의 공조 속에 그동안 제공되어온 주거

<표 2> 영역별 성적욕구 표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성적욕구가 표출되는 원인	구체적인 상황	문제점 사례	대처방안
시설내 여성노인에 대한 집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상 곁에 있으려고 하는 행동. 여자 노인 방에 들어가려고 시도함. 시설내 노인들간 치정관계가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모의 여성노인을 항상 따라 다니며 방해하기에 특별관리 및 방배정 재배치등의 불편이 생김. 시설이 지역사회내에서 비하되는 웃음거리 소문의 발원지가 되어 이미지 추락 남자노인들간 폭력사태가 발생. 여자 노인도 따돌림을 당하고 프로그램에서 소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들에게 스스로 이러한 성문제를 토론하고 통제하는 自助모임(self-group)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지자체 지원 비영리법인 노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입소노인들의 상호 교환제도가 지자체 관리하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함.
인지능력 저하에서 오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 여성방문객 앞에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봉사자들을 충격에 빠뜨림. 젊은 여성 팔이나 등을 어루만져 당황하게 함. 으스스한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봉사자들을 놀라게 함. 심한 성추행시 도로 시설 이미지 추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약한 여자에게 가해지는 공격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시설내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서비스 활동을 지체시키시는 문제를 야기함. 노동력과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면서도 온화한 심리적 특성을 지는 여성봉사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여 큰 정서적 피해가 생김. 봉사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시설 이미지 추락으로 봉사자가 감소하거나 특정 봉사활동에 집중적으로 차질이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시설에서의 일상적인 공동활동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도 부분적인 요양관리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과 요양시설이 동일 법인내에서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함. 덧발과 숲이 있고 노인들의 고립생활 가능성이 높은 농촌지역 시설을 주요 목표로 하는 봉사자 적용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적용프로그램에는 성적욕구 표출행동 사례 및 효과적인 대처사례에 대한 의견교환도 포함되어야 함. 또한 성적욕구를 표출하는 노인들도로 인해 직원이나 봉사자가 기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마련되어야 함.
여성과의 장시간 접촉 후 서서히 발생하는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서서히 욕구가 증가하여 피성을 지르거나 성기가 발기함. 대소변 가리는 일이나 옷 갈아입히는 도중 여성을 어루만지거나 손을 잡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 봉사자 학생들을 제외시키고 그러한 상황에 익숙하게 대처하는 중년 여성들만을 봉사활동에 투입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노인들의 입소를 유도하려 고의적으로 그런 맛사지를 한다는 오해와 피담으로 시설 이미지가 추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풀 네트워크(Pool Network)제도가 구축되어 전문성을 요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남녀 혹은 연령대별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순환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 회상을 통한 미술치료나 원예치료를 활력적인 여성봉사자와 노인들 여러 명이 어울려 공유하면서 목표지향적인 노력을 통해 욕구불만을 해소하면서 성적인 면에만 집착하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건전한 교류와 발산의 가능성을 높여줌.

생활 서비스 외에도 간호와 요양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양시설 확충계획 집행에 있어 기존 노인주거시설이 있는 곳이나 인접한 곳에 요양원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주거시설에서의 문제행동 노인들이 인근 요양원과의 협조체계 속에서 즉시 移送(transfer)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노인들의 성욕구 표출을 접하며 충격을 받은 봉사자들도 여러개 연계시설에서 공동으로 위축하는 성문제 전문가 및 의료진의 자문을 통한 다양한 대처기술을 축적하면서 성욕구 표출에도 좌절하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하는 전문적인 봉사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수지(1996). **실버시대의 실버사업**. 동인사
- 김태현(2000). **노년학**. 교문사
- 김태현·한희선(1996). 노년기의 성.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 10, 89-107.
- 동명노인복지센터(2005). <http://www.dmsenior.or.kr>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중 자원봉사분야자료 검색.
- 문장학(2000). **노인의 성적 권리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규(2001).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2001 봄호**, 75-104.
- 보건복지부(2001).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69-88.
- 보건복지부(200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101-122.
- 보건복지부(2004).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05).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검색.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2007).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검색. <http://www.mohw.go.kr/>
- 손장권(1997). 현대사회와 성윤리 : 한국인(韓國人)의 성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아산사회복지재단.
- 송미순·김신미·오진주(1997). **노인간호연구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안소윤·김원중·허영배(2002).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대한물리치료학회 14권 4호** 233-244.
- 오진주·신은영(1998). 노인의 성적욕구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18(2), 97-109.
- 오진주(2002). 무료노인시설 성 보호 환경과 종사자들의 관련 태도 및 활동정도, **한국노년학 22(3)**, 99-113.
- 이기순(1994). **양로시설 거주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예종(2001). 노인의 이성교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수(2002). 양로원 생활의 장단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13-124.
- 이인수(2005). **노인복지의 최신 핵심과제 요약**. 도서출판 21세기사.
- 이진우(1997). 성·욕망 그리고 실존의 미학, **감성철학**, 296-328.
- 작은자의 집(2006). **돌방상할 대처 사례**. 전남 보성군 소재 무료 양로시설 <작은자의 집> 연례보고서.
- 전남노인복지시설협회(2004). 2004년도 도내 시설종사자 직무연수 자료집.
- 정승은(1999). **Sexuality of elderly**. 해전대 논문집, 446.
- 정은희(1993).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269-29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2005). <http://www.elder.or.kr/>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중 자원봉사 분야 자료검색결과를 발췌함.
- 한국치매가족협회(2005). <http://www.alzza.or.kr/ezboard/>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중 치매지식 부분 검색자료.
- 한현미(1993).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Burnout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갑수(2003). 의료기관 행정직원의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인적자원연구**, 제7집, 31-62.
- 현의성 외(2002).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서울: 예프출판사.
- American Association of Home and Services For the Aged: AAHSA(2002). **Guidance for Choosing the Member Facility**, <http://www.aahsa.org/public/links.htm>(인터넷홈페이지자료실)
- Archibald, C.(2002). **Sexuality and dementia in Residential care-whose responsibility?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7(3), 301-309.
- Barber, H. R. K. (1996). **Sexuality and the art of arousal in the geriatric woman**. *Clin Obste and Gynecol* 39(4), 970-973.
- Brown, L.(1989). **Is there sexual freedom for our aging population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3, 75-90.
- Carter, A. E. & McGoldrick, M. (1990).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Y.: Gardener Press, Inc.
- Gutierrez, L. M. (1990), "Working with Women of Color : An Empowerment Perspective", *Social Work*, 35(2).
- Hillman, J. L., & Striker, G.(1994). "A Linkage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ly Sexuality : Not Necessarily a Uniform Relationship", *The Ge-*

- rontologis Society of America*, 34(2), 256-260.
- Levesque, L.(1993). Why alert residents are more or less willing to cohabit with cognitively impaired peers: an exploratory model. *The Gerontologist*, 33(4), 514-522
- Master, W. H., Johnson, V. E. (1966). *Human sexual response*. Boston : Little Brown.
- McCartney, J., Izeman, H, Roger, D and Cohen, N. (1987). Sexuality and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J Am Geriatr Soc*, 35, :331-333.
- Pillemer, K., & Moore, D.(1989). Abuse of patients in nursing homes: findings from a survey of staff. *The Gerontologist*, 29(3). 314-320.
- Pynoos, J.. and Regnier, V. (2000). *Housing the Aged*, London; Elsevier Press.
-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1994). *Annual Reports on Nursing Care*. Wheaton, M.D., U.S.A.
- Rowland, K. F., & Haynes, S. N.(1978). A sexual enhancement program for elderly couple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py*, 4, 91-113.
- Selickman, M. A.(1971). Medical care in a facility for the healthy aged, *Geriatrics*, Nov. 2, 107-117
- Steinke, E.(1988). Older adults'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sexualiy and aging.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 93-95.
- Szass, G. (1983). Sexual incidents in an extended care unit for aged man. *J Am Geriatr Soc*, 31, 407-411.
- Welch, S. J. Clements, G. W. (1996). Development of a policy on sexuality for hospitalized chronic psychiatric patient.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1, 273-279.
- Zimmer, J. G., Watson, N., & Treat, A (1984). Behavioral problems among patients in skilled nursing faci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 1118-1121.

접수일 : 2007년 11월 05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1월 25일